

# 가든·호프·여행

## 송상용

한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

우리는 일본사람들이 남의 흉내를 잘 낸다고 흉보지만 좃대 없이 모방만 하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무슨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몰려들고 무엇이 몸에 좋다 하면 모두 무조건 먹어치워 동이 난다.

어떤 갈비집이 '○○가든'이란 간판을 걸자 새로 생기는 집마다 가든이 되더니 어느틈엔가 맥주집은 예외 없이 'XX호프'가 되었다. 국민성까지 들추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창피한 노릇이다. 이런 한심한 현상은 출판계에도 가끔 있다.

요즘 과학책에는 '여행'이란 제목이 판을 치고

있다. 내가 알기에 '여행'을 처음 쓴 책은 1976년 電波科學社가 낸 現代科學新書 21이었다. 유명한 가모브의 「페이퍼백 속의 톰킨씨」를 역자 鄭汶奎 씨가 「未知의 世界로의 旅行」으로 바꾸어 냈다. 그 책은 이름 탓인지 꽤 어려웠는데도 잘 팔렸다. 작년인가 김영사에서 낸 「재미있는 물리여행」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화제에 올랐다. 재미있지도 않고 여행이 어울리지도 않는 이 책의 성공이 '여행' 사태를 몰고 왔다. 교양과학 책들은 모조리 '여행' 아니면 '재미있는', '알기 쉬운'을 붙이고 있으니 우선 구분하기가 힘들다.

교양과학서적 붐은 반가운 일이라고 모두가

환영했다. 그러나 점두에 늘어나는 과학책들을 보면서 걱정이 앞섰다. 대부분이 일본, 소련 책을 옮긴 것이고 북한 책을 베낀 것도 몇가지 보인다. 그런데 잠깐 들추어 보기만 해도 너무나 허술한 데 놀라게 된다. 지은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옮긴이의 정체도 희미하다. 도대체가 미덥지가 않다.

좀 읽어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용어도 엉망이다. 지금은 안쓰는 일본 용어, 그리고 낯선 북한 용어가 그대로 나온다. 이런 책들을 읽고 오도당할 독자들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정말 큰일났다. 신문에서 덮어놓고 부추길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과학의 대중화는 화급하다. 대중에게 먹혀들어 가기 위해서는 쉽고 재미있어야 하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은 건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공들인 훌륭한 과학책이 나와 '여행'을 도태할 날은 언제일까?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8월 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8호(9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고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문제1

윤선도의 「山中新曲」은 유명한 「五友歌」를 비롯해 아침안개, 여름비, 저녁노을 등을 노래한 18수의 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드는 「산중신곡」 중의 한 수는 어떤 정취를 노래한 것이겠습니까?

“바람 분다 지게 단아라 밤 들거다 불 앓아라 / 벼개에 히즈려 슬카지 쉬여 보자 / 아희야 새야 오거든 내 잠 깨와스라”

- ① 夏雨 ② 日暮 ③ 深夜 ④ 朝霧

## 문제2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와 유사한 뜻으로 “재수 없는 노처녀는 봉긋방에 가 누워도 고자 옆에 눕는다”라는 우리 전래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봉긋방’이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 ① 주막집 대문 가까이 있는 방
- ② 양반집 대문간에 붙어있는 행랑채
- ③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방
- ④食客들이 드나드는 세도가의 객실

## 문제3

고려 인조때의 시인으로 김부식의 시기를 받아 묘청의 난에 연루돼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鄭知常의 다음 시가 노래하는 江은 어느

강이겠습니까?

“비 개인 긴 독에는 풀빛도 하 많아라 / 그대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 울리나니 / 이 물은 언제 나 다할고 / 해마다 이별 눈물이 물결을 더하는 것을”

- ① 두만강 ② 압록강 ③ 대동강 ④ 한강

## 제64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4호(6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36통, 이중 정답자는 1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 문제1

③ 蘇世讓(이 작품의 원제가 「소세양을 보내며 ; 送別蘇世讓」입니다. 소세양은 조선 인조~명종대의 문신으로 律詩와 글씨 솜씨가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 문제2

- ① 매화

## 문제3

② 俞好仁(편집상의 착오로 시조작품 전문이 빠졌습니다. 성종이 유효인의 낙향을 말리며 지은 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시럼 부디 갈다 아니 가든 못할 소냐 / 무단히네 슬드나 남의 말을 들었느냐 / 그러도 하 애도래라 가는 뜻을 일러라)

## 당첨자

- 김진경(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03-231)
- 김계희(충남 아산군 신창면 순천대학교 도서관 수서과)
- 권애자(경북 문경군 문경을 팔령 1리 11번지)
- 정윤영(경북 문경군 문경읍 교촌리 문경고등학교)
- 류순희(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 1386 도성 APT. 103-108)

# 출판저널

통권 제66호/1990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堯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憲玉 林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식자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사령위원

- |     |     |         |     |
|-----|-----|---------|-----|
| 琴章泰 | 金光秀 | 金炳翼     | 金錫滿 |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金仁會 |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金泰賢 |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朴世熙 |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宋相庸 |
| 申福龍 | 慎鏞廈 | 安秉永     | 安輝濤 |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李康淑 |
| 李瑋薰 | 李光周 | 李基相     | 李斗暎 |
| 李萬烈 | 李炳勳 | 李相日     | 李勝羽 |
| 李元毅 | 李重漢 | 李載載     | 임희섭 |
| 張必和 | 張會翼 | 鄭丙圭     | 鄭奭鍾 |
| 鄭雲暎 | 鄭晉錫 | 鄭鎔弘     | 曹大鉉 |
| 崔鍾庫 | 韓相震 | 韓勝憲     | 許順烈 |
| 洪廷善 | 黃鉉產 | (가나다 순) |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